

삼성 · LG, AMOLED 기술 유출

경쟁국 중국 · 타이완에 유출 ... 90조원 시장 · 1조원 이상 투자한 기술

삼성과 LG의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인 'AMOLED'와 'WHITE-OLED'의 회로도 등 제작 핵심기술이 이스라엘의 검사장비 납품기업을 통해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핵심기술이 중국 최대 패널업체에 넘어간 정황이 일부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AMOLED로 불리는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은 응답속도가 LCD보다 1000배 이상 빠른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로, AMOLED 제작 기술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기법)'에 따라 첨단 국가핵심 산업기술로 지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김영중 부장검사)는 27일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AM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산기법 위반 등)로 디스플레이 검사장비 납품업체인 O사의 한국지사 직원 김모(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의 상사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O사 한국지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AMOLED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기술을 신용카드형 USB 등에 담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삼성과 LG의 AMOLED 패널 생산현장에서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55인치 TV용 AMOLED 패널의 레이어별 실물 회로도 등을 촬영하고 이를 저장한 USB를 신발이나 벨트, 지갑 등에 숨겨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몰래 빼낸 자료를 정리해 이스라엘 본사와 홍콩 법인을 비롯해 삼성·LG의 경쟁사인 중국·타이완 기업을 관리하는 영업담당 직원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90조원에 달하는 AMOLED 시장은 삼성과 LG가 주도하고 있으며 유출된 기술을 개발하는데 삼성은 약 1조 3800억원, LG는 약 1조 2700억원을 투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6/27>